



김보선 정읍 코튼클럽 대표, 성금 4000만원 기탁

속옷 전문 기업 (주)코튼클럽 김보선 대표가 지난달 30일 북면사무소에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성금 4천 만원을 전달했다. 정읍시 북면 신령리 출신인 김보선 대표는 남다른 애郷심으로 2013년부터 10년째 매년 성금을 전달하며 남다른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북면 면민의 날 제전위원회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김보선 대표는 "면민 화합과 고향 발전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저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살기 좋은 북면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면 신령리 출신인 김 대표는 북면초와 호남중, 정읍고를 졸업했다. 1988년 신광실업을 설립한 이후 1998년 해태상사(주)에서 (주)코튼클럽을 인수해 회사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했다. (주)코튼클럽은 속옷 업계 최초 4천억원 매출 달성에 근접했으며, 현재 국내 속옷 시장 점유율 1위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직원에 감사장

무주경찰서(서장 빈중석)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피해자는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을 낮은 이율로 해주겠다"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보증금으로 은행에서 1000만원을 현금인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위 농협에서 "고리대 구입 및 판매대금"에 사용하려 한다며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평소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농협직원의 판단으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은 "평소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전화금융사기에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무주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준 농협 직원의 관심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앞으로 경찰에서도 전담직원 및 지역경찰을 통해 체계적으로 예방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실시

남원시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3개 읍·면·동 물놀이 담당공무원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0명이 대상으로,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물놀이 사고 초기 구조 및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제동기 이용법,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법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5월부터 산동면 고소암 및 산내면 뱀사골 일원 등 총 9개소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에 대한 인명구조장비 설치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기간 동안(7월 1일 ~ 8월 31일)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강동일 순창소방서장 취임

7월 4일 취임 "현장중심 빈틈없는 소방정책 펼칠것"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제3대 강동일 순창소방서장이 7월 4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강동일 소방서장은 1995년 제3기 소방간부후보생 공채로 소방에 입문하였으며, 각종 재난현장 수습과 대통령 경호처 근무,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부안소방서장, 김제소방서장,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소방행정, 기획, 예방, 대응 등 각 분야에 능통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지휘통솔 능력으로 직원들의 주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지휘관으로 알려져 그 역량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강동일 순창소방서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빈틈없는 소방안전정책을 펼쳐 순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국회 토론회 '최우수상'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최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린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이 과정은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의 기능 및 역할, 의회민주주의와 정당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미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5회차를 맞은 이번 연수에는 '청년, 대한민국 정치를 뒤집는 힘'이라는 주제로 전북대를 비롯해 경북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 전국 10개 대학 99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 대회에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는 박경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정찬 학생을 비롯한 김태현, 김태현, 박한결, 김이름, 변진희, 안유진, 정혜진, 문준혁, 변효이, 오연우 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 간 갈등이 상호에 대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 파악하고,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정치적 소통

창구를 확대해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이 공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정찬 학생(18학번)은 "이번 의회연수에서 청년정치라는 주제로 당사자인 청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른 학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최우수상을 받아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순창을크린 '제7회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 최우수상

(유)순창을크린 강남훈 대표가 지난 6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강당(서울시 종로구)에서 열린 '제7회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제공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가치제고를 위해 전국 3,000여개 사회적기업 중 3년간 자율경영공시를 진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공익성, 윤리성, 경제성 3가지 평가지표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사하여 (유)순창을크린을 '일자리제공 부문' 올해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유)순창을크린은 건물위생관리, 소독방역, 저수조생남방기청소 등 관내·외 다양한 청소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무료 소독방역과 장학금 전달 등 수익금의 일부

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모범이 되고 있다. 강남훈 대표는 "사회적기업 설립취지에 맞게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서 기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같이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하는 나눔 경영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사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 신대인농협, 대의원 교육 성료

정읍 신대인농협(조합장 김성주)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 까지 1박 2일 동안 농협인성교육원에서 대의원 교육을 실시했다. 대의원 60여명이 참여한 교육에서는 "농협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의원의 역할 제고, 농협과 대의원의 비전 공유 및 협동조합 정체성 함양의 주제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고, 조합장과의 소통의 시간에는 열띤 토론과 아낌없는 격려로 농협과 조합원이 함께 해나가는 기회와 장을 마련했다. 김성주 조합장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대의원들의 모습을 보니 코로나19로 다소 정체되었던 조합원들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는 듯하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향교, 성균관 봉심 유적지탐방 시연회 열어

진안향교(전교 최경호)는 1일 3년만에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안향교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간 중단됐던 시연회를 열어 유림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성균관과 창덕궁에서 봉심하고, 역사유적지 탐방에 나섰다. 오래간만의 시연회에 참석한 유림들은 한지리에 모여 향교 운영 등에 논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준성 관수는 참석 유림들을 배웅하며 "향교의 사회적 윤리질서 선도에 헌신함을 격려하며, 코로나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행사가 보다 유익하고 안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호 전교는 "우리 향교는 새로운 유림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모든 유림들이 함께 동참·협조하며 향교 운영에 있어서 변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이재원 신임 소장 부임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신임 소장에 7월 1일자로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장을 역임한 이재원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재원 소장은 1992년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하여 공단 본사 재난안전부장, 변산반도국립공원 소장, 내장산국립공원해안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부임 소장에서 이재원 소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온전한 보전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을 강화하고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등 국립공원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 하고, ESG 경영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한 공익관리로 지리산국립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최범용 에너지기술원 감사, 군산대 석좌 교수 임명



최범용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감사가 국립군산대학교 석좌교수로 7월 1일자 임명되었다. 최범용 전 감사는 군산대학교 에너지 정책분야 석좌교수직을 맡아 앞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산업에 대한 대학의 신화연관 협업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범용 전 감사는 에너지정책 신재생 에너지 분야 특강, 전국 신재생에너지포럼 회장, 전국 수소포럼 명예 회장 및 농어촌자원개발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총괄처장 및 단장, 새만금에너지 기술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 임실경찰, 성평등 리더쉽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최근 3층 치즈마루에서 실·각 과장 및 지구대·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지휘부 성평등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좋은 리더를 위한 5R 성평등 리더쉽"을 주제로 전북도경찰청 소은선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 주제인 5R은 인식(Recognition), 존중(Respect), 효과(Result), 변화(Reboot), 책임(Responsibility)을 뜻하는 말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조직 내 존중하는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김효진 경찰서장은 "지속적인 성평등 리더쉽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전홍영 기자

## 남원시, 4H연합회 체육행사 개최

남원시 4H 연합회는 지난 6월 28일 남원 거점 스포츠 클럽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4H 서약제창을 시작으로 풋살, 피구, 씨름 등 체력단련 경기와 레크레이션 등을 3시간 동안 진행했고, 코로나 19장기화로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행사를 3년만에 열어 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남원시 4H 연합회는 현재 8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회원 모집, 과제활동,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덕·노·체 4H 이념을 몸소 실천하여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세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안효성 회장은 "4H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발전시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는 활력을 주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부안 진서 입암마을,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앞장

지난달 30일 진서면 석포리 입암마을 주민들은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과 연계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입암마을 주민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내 소사를 방문하는 50만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을 안길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 주변 제조직업과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무더운 날씨임에도 마을을 위해 청소하는 일이나 다 같이 참여해야만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의 참모습을 실천하였다. 입암마을 신선철 이장은 "마을에 고품격한 어른들이 많으신데도 항상 마을을 위한 일이라고 하시며 적극 참여해 주시는 주민분들에게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문화군민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